

광주서도 5·18 왜곡 자행

김대중센터에 故 노 전 대통령 비하 사진 나붙어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올렸다 삭제 ... 사법 대응 시급

광주에서도 5·18 광주민중항쟁을 왜곡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나붙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게시물이 5·18 왜곡 및 폄훼 글을 게시한 보수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올라지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강력한 사법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알라와 합성한 비하 사진과 함께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인 18일을 '폭동절'로 표현하면서 '광주는 폭동이야'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컨벤션센터 입구에 붙이고 찍은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올라와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이 사이트 게시판에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코알라와 합성하고 5·18 민중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한 글이 적힌 A4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그러니까 계엄군이기에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라고 쓰여져 있다.

해당 글은 최근 5·18 왜곡·비하에 대한 파문을 의식한 작성자가 삭제했지만 누리꾼은 당시 올라온 글을 캡처해 김

대중컨벤션센터에 올리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센터 홈페이지에 "광주시민으로서 분노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센터측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하는 데 그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5·18 왜곡 글을 주말까지 자진 삭제할 것"을 경고한 점을 감안하면 산하기관의 대처 방식은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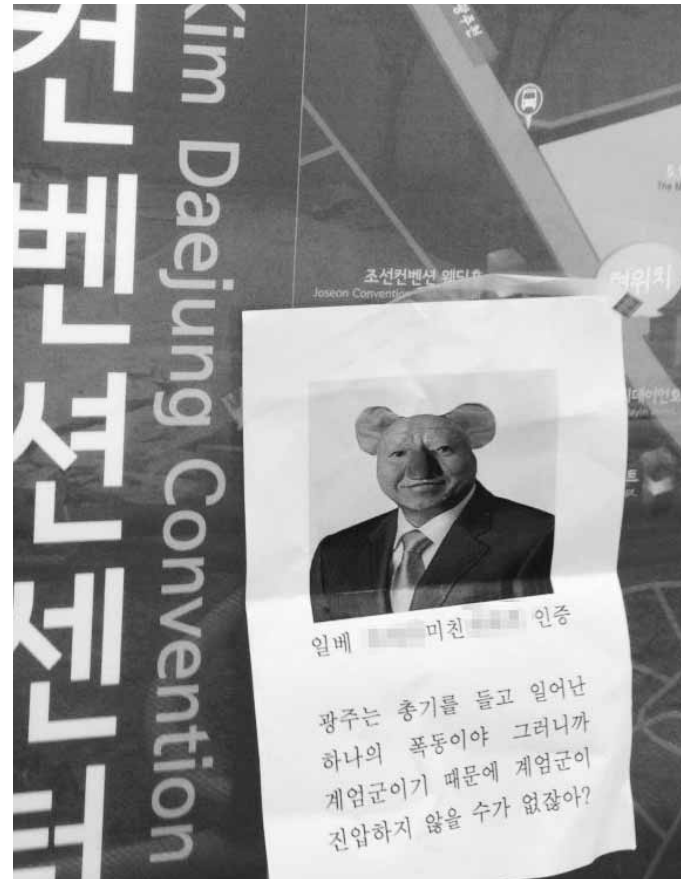
센터측은 또 게시판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자료판리는 김대중 도서관과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하고 있으니, 고객님께서 알려주신 자료는 관련 기

관에 전달하여 처리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올리기도 해 무성의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혐오, 비하의 글은 다른 방문 고객들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센터의 이미지도 손상시키기 때문에 삭제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광주시와 상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강북경찰은 지난 19일 홈페이지 대구 칠곡점의 외주업체 직원 노모(20)씨를 노 전 대통령 얼굴과 닮은 합성한 사진을 매장 스마트 TV 바탕화면에 띄우고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입건했고, 홈페이지는 사과문을 올렸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에 나뉜 노무현 전 대통령 왜곡 사진.

나원침 (8820) 김종두



시교육청 간부 페이스북 비난 조사

광주시선관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재남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표진 전 부교육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학관은 최근 박 전 부교육감이 일부 언론에 기고문을 내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치졸한 행태, 비열한 구시대 관료로 변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전 부교육감

이 교육청 체육대회에서 교육청 직원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며 운전까지 시켰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박 전 부교육감의 강한 반발을 샀다.

선관위는 공무원 신분인 이 장학관의 행동이 공무원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를 계획·반복적으로 비방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檢, 4대강 담합 건설업체 임원 본격 소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체 주요 임원들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검찰과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최근 현대건설의 손모(61) 전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씨는 현대건설에서 2008~2011년 토목사업본부 전무를 지냈으며 같은 기간에 '한반도 대운하TF팀장'도 맡았다가 2011년 초 퇴직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소환 조사한 건설업체 임원급은 여러 업체의 4~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각 업체가 어떤 경위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지, 해당 공사구간은 어떻게 낙찰받게 됐는지 등 사업 참여와 진행 경과에 관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인 주요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곳과 시정명령을 받은 금호산업,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한기업 등 8곳이다. /*연합뉴스



"이제 어른 됐어요"

성년의 날인 5월 20일, 광주시 남구 시동 광주향교에서 성년식을 마친 스무살의 젊은 남녀들이 미소를 지으면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성폭력 전담 수사팀’ 만든다

2015년까지 전국 경찰서에 전문요원 증원

경찰이 성범죄 관련 치안활동을 전담할 수사팀을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 설치하는 등 대폭 개선된 성폭력 대응 체계를 운용한다.

경찰청은 2015년까지 전국 250개 경찰서에 경찰관 879명을 증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성폭력 우범자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개선된 체계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오는 27일부터 3개월간 새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새 대응체계의 핵심은 지역에서 성범죄 예방·수사·피해자 관리 등 관련 치안 업무를 전담할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이다.

경찰은 관악서에서 수사경찰관, 여성 등 12명으로 전담팀을 시범 운영하고 나서 전국 경찰서에 올해 연말까지 경찰관 294명, 내년 293명, 2015

년 292명을 순차적으로 늘려 전담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각 지방경찰청에 신설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를 전담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 전담팀은 이뿐 아니라 성인·비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일반 성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까지 맡는다.

지금까지는 일선 경찰서에서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은 생활안전계, 사건 수사는 형사과, 피해자 돌봄 등 관리

는 여성청소년계로 업무가 나뉘었다. 앞으로는 전담팀에서 3가지 업무를 모두 맡도록 일원화해 성폭력범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는 강간, 강제추행 등 일반적인 성범죄 수사에서는 손을 떼되 살인, 강도 등 여타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함께 이뤄진 경우 필요에 따라 전담팀과 공조 수사하게 된다. /*연합뉴스

통닭 배달원 굶금 갈취

전직 배달원 영장 신청

광주 남부경찰은 20일 통닭을 주문한 뒤 배달원을 폭행하고 굶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신모(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10시에 광주 남구 방림동 주택가에서 배달원 김모(16)군을 폭행하고 175만원 상당의 굶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배달원인 이들은 저녁시간대 배달원들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노려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영터리 점괘다" 역술인 폭행

상나팔

○... "다른 곳에서 본 점괘와 다르다"며 역술인을 폭

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8)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점집 마당에서 점괘가 잘못됐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점집이 주모(48)씨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다른 곳에서 본 점괘와 다르다. 영터리로 본 것 아니냐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주씨가 거부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

/*이종철기자 golee@kwangju.co.kr

여성가족부 인정

2013년도 야간방학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율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만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 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 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률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062)943-8804.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